

일 주 문



불광사 유아수계법회
지흥 서울 불광사 회주 스님은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경내 법당에서 '제2회 불광사 유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청소년음악놀이페스티벌
정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은 5월 8일 오후 5시 서울 우정국로 특설무대에서 '제16회 청소년음악놀이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연등 꾸미기 경연대회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4월 30일까지 '제4회 가족과 함께하는 연등 꾸미기 경연대회' 작품을 접수한다. 수상자 발표는 5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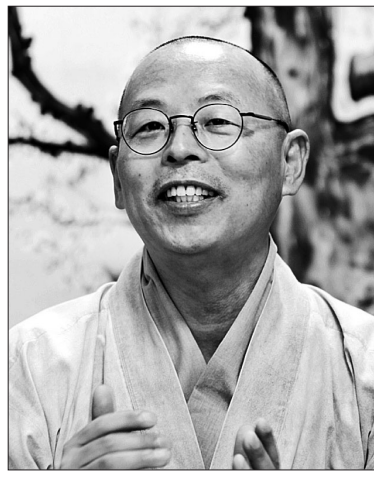
봉축기법 '이 뒀꼬' 초청공연
호성 의성 교운사 주지 스님은 5월 3일 오후 7시 30분 안동문화예술평의장에서 봉축기법 특별초청공연 '이 뒀꼬'를 개최한다.



교사불자회 임원회의
배한옥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4월 23-24일 양평 용문사에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상반기 임원회의'를 실시한다.

“현대 한국불교 실천담론 찾겠다”

Interview
한국불교 향상포럼 창립 공동대표 법인 스님



불교계 대표 지성들 협업 진행
현 불교 상황 대안 마련 고민
15일 창립 첫 토론회 포럼 개최
“현대언어로 불교담론 다룰 것”

“불교는 철학적 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삶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현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돼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 될지를 연구·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창립하는 ‘한국불교 향상포럼-성찰과 대안(이하 향상포럼)’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실천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월 15일 창립된 향상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법인 스님(일지암 주지·사진)은 기자회견에서 향상포럼의 창립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팔마리를 풀었다.

향상포럼은 지성의 공동협업을 통해 한국불교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월 15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서 첫모임을 한 이래 2개월의 준비를 거치면서 외연을 만들어갔다.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도 교수, 출판인, 활동가 등 다양하다. 공동대표에는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참여하고

운영위원으로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 교수, 한영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황순일 동국대 교수, 유지호 ㈜불광 대표이사, 박재현 신대승 네트워크 소장 등이 함께한다.

이들의 목표는 ‘지성 간 협업’과 ‘현대 불교의 실천론’을 모색하는 데 있다. 포

럼 진행방식도 기존 학술세미나·회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한 운영원칙도 세웠다.

5~6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운영 원칙으로는 △ ‘삶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을 다룰 것 △ ‘문제중심형’으로 발표 △ ‘자기의 생각’을 ‘의미를 명확히 한 현재어’에 담아낼 것 △ 발표방식은 자유롭게 선택 등이었다.

“모든 발표는 ‘풀어야 할 지금 여기의 문제 상황’을 사례적으로 설정한 후, 발표자가 소화하고 있는 교학적 이해를 비롯한 모든 전문성을 적용시켜 문제와 관련된 시선을 개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으로 포럼이 이뤄질 것입니다. 일반인이나 불교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일 열린 창립행사는 ‘박물관불교학, 실용불학’이라는 주제로 토론크서트가 진행됐다. 참여 패널들은 관련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금기 없는 개방성, 성찰적 지성의 깊이와 신중함으로, 한국불교의 향상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확보해 가고자 합니다. 포럼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신성민 기자

선본사 갓바위 산신제 봉행

9일 삼성각서... 500여 명 참석



조계종 직역사찰 선본사 갓바위(주지 법승)는 4월 9일 경내 삼성각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제를 봉행했다.

주지 법승 스님은 “갓바위 부처님 자비광명이 모든 가정에 항상 충만하며 발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 되길 서원한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선재종 창종법회

총무원장에 지은 스님 취임



대한불교선재종은 3월 30일 광주 미륵사에서 창종법회를 봉행하고, 총무원장으로 지은 스님(영천 용화사 주지)이 취임했다. 창종법회는 지은 스님, 두백 스님(전 백양사 주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창종 선포문 낭독, 행장소개, 취임사, 임명장 수여, 축사, 발원문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국 초티코 스님 초청법회

대구 성불암, 4월 7일 대웅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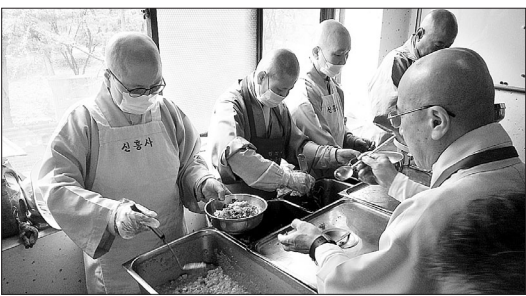


대구 달성군 성불암(주지 옥당)은 4월 7일 대웅전에서 태국 마하출라롱콘 대학교 부총장이자 왓 아룬 새벽사원 주지 사와이 초티코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태국 사와이 초티코 스님은 “다 같은 부처님 제자로 국적과 수행하는 교육의 방법은 달라도 불법은 삼보에 귀의하고, 정법포교를 다른 이웃과 함께하여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불보살도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고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문수학 스님들의 따뜻한 나눔

동국대 총동림회 12일 탑골공원 배식봉사



중단과 나이를 불문한 선후배 스님들이 모여 탑골공원 어르신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해 화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스님들의 모임인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4월 12일 탑골공원 옆 원각사에서 무료 점심 배식을 진행했다.

이날 배식봉사에는 회장 혜정 스님을 비롯해 고문학명 스님, 명예회장 무문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등 10명이 참여했다. 스님들은 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직접 음식을 건네고,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눴다.

총동림동문회 회장 혜정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하자는 회원 스님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올해 하반기 전 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례를 겸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회장 학명 스님은 “출가자의 본분이 바로 봉사”라며 “주변의 많은 스님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101세 선도 스님, 동국대에 장학금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는 4월 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선도장학회(이사장 선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올해 101세를 맞은 선도 스님은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3명의 장학생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도 스님은 전 경남 통영 신광사 주지로,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불자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해 200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선도장학회를 설립한 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선도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나라 잃은 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국가의 소중함이자 애국”이라며 “학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부지런히 공부해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선도 스님께서 이렇듯 정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감동적이며 감사드린다”며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앞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충실히 하도록 기초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공덕원, 지장기도처로 회향할 터”

공덕원 주지 능후 스님

“앞으로 지장기도 신앙처로 많은 불자들의 의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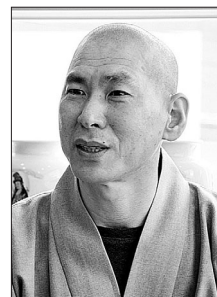
지장불교 근본도량으로 22년간 부산 용호동을 지켰던 공덕원(주지 능후·사진)이 부산 대연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덕원은 대지면적 120평, 연건평 140평으로 총 3층의 현대식 건물이다.

능후 스님은 앞으로 공덕원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쉼터로 회향하고 열린 공간, 친근한 불교를 지향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 포교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스님은 “요즘 어린이 범법을 열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아울러 청년 포교를 위해 남구정 범우회와 합동 범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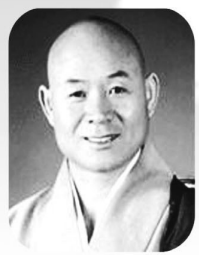
아울러 능후 스님은 은사인 석용산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능후 스님은 “부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고 수행해왔다. 신도들이 흩어져도 할 수 있는 일은 공덕원을 찾는 불자들을 위해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은사의 스캔들과 임적 후 수습해야 할 문제로 정신 차릴 시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편견이 가장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능후 스님은 “누구나 맘 편히 찾아와 쉬다 갈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축불사 낙성법회는 4월 25일 오전 11시 법당에서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한의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경대학.

2 학교소개

-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 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